

융복합 시대에서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 및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의 관계: 도덕적 고양의 매개효과

장용희*, 김경자**, 이재신*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Elevation

Yong-Hee Chang*, Kyung-Ja Kim**, Jae-Shin Lee*
Dept.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
School's Job Center, Konkuk Glocal Campus**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시대에서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 및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고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청주에 소재한 C대학교 재학생 647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측정도구인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 이타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SPSS 프로그램과 AMOS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37, TLI=.917, RMSEA=.0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결과는 첫째, 성격강점(인간애)와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덕적 고양은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 이타행동, 구조방정식 모형,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ele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in the times of convergence. 647 college students in Cheongju were sampled. Four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employed; a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cale, Self-Control Scale, Moral Elevation Scale, and Altruistic Behavior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Fitness of the final model were CFI=.937, TLI=.917, RMSEA=.07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Second, according t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moral elevation had a mediating effect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Key Words :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Moral Elevation, Altruistic Behavior, SEM, Convergence

Received 16 July 2015, Revised 20 August 2015

Accepted 20 Sept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Jae-Shin, Lee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jslee@chungbu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주의, 사람들 간의 소통의 부재 및 소외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가 함께 잘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이타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간의 여러 긍정적인 특성 중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타주의적 성향이다.

이러한 이타주의에 기초한 이타행동은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동기를 갖고 행해진 사회적 행동으로서 [1], [2]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불편을 감내하려는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타주의가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삶의 만족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동안 이타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몇몇 변인들과의 관련성 연구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규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타행동의 성격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많은 연구들이 아동이나 초기 청소년을 연구 대상을 한정해 오면서 이타행동이 더욱 강조될 수 있는 성인 초기 단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이타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변인으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정서인 ‘공감’을 대신하여 긍정심리학의 맥을 함께 하는 긍정적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매개 변인으로 삼아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되는 개인 내적 특성 변인으로서의 성격강점(인간에)과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 변인들이 이타행동에 대해 갖는 직접·간접효과와 이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타행동에 영향을 끼치리라 예측되는 변인으로서 개인 내적 특성 변인인 성격강점(인간에)을 들 수 있다. 성격강점이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과는 달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속시켜주면서 좋은 느낌과 희열감을 나타내는 긍정적 특질인 것으로 간주된다[4]. [5]는 성격강점을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강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성격강점은 6개 핵심덕목의 하나인 인간

애로서 이는 타인을 보살피고 이해하며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강점들로 이해되며, 사랑, 친절성, 사회·정서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6, 7]은 인간에 성격강점을 통해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성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타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격강점의 인간에 덕목이 이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험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타행동에 관련된 또 다른 개인 내적 특성 변인의 하나인 자기통제력은 순간적인 충동성과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으로 간주되며 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 및 사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이기도 하다. 자기통제력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연구자들[8, 9, 10]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11]은 [12]의 4구성요소모델에 해당되는 변인이 어느 경로를 통해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도덕적 행동표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덕적 실행능력을 나타내는 자기통제력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력이자 도덕적 실행능력으로서의 자기통제력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도덕적 행동표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요인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13]. 이상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이 이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험적 근거가 되고 있다.

성격강점(인간에)과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이타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인일 것으로 예측하는 것과 함께 이들 변인들과 대학생의 이타행동 간에 도덕적 고양이라는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도덕적 고양은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목격하여 느끼게 되는 도덕적인 긍정적 정서로 간주된다[14]. [15]는 도덕적 고양이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며, 인간애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이타행동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고양이가 이타행동을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긍정적 정서라고 주장한 [16]의 연구결과와 주장은 도덕적 정서에 해당하는 도덕적 고양이가 이타행동에 관한 동기 유발 및 행동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작용을 할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성격강점(인간에)

과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특히,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및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고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타행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이타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지도 전략과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및 도덕적 고양은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은 도덕적 고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은 도덕적 고양을 매개로 이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4년제 C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1학년~4학년) 662명을 표집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설문지는 검사 협조자인 담당교수와 강사의 협조하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수업을 마칠 무렵에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총 662개의 자료들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미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647명 학생들(남학생: 312명, 여학생: 33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 이타행동척도 4가지였다. 성격강점(인간애)은 [17]의 성격강점 척도 중에서 인간애 항목만을 사용하였으며, 자기통제력 척도는 [18]의 척도를, 도덕적 고양 척도는 [19]이 개발한 척도를 [20]가

수정 보완한 도덕적 미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타행동은 [21]의 도움행동척도를 [22]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Cronbach's α) 결과, 모든 척도가 신뢰도 0.6 이상으로 영역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Table 1>.

<Table 1> Items and reliability of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Moral Elevation Altruistic Behavior Scale

Variable	No. of items	Cronbach's α
Character Strengths(Humanity)	20	.82
subfactor	love	.72
	kind	.86
	social·emotion	.75
Self-Control	20	.88
subfactor	impulsiveness	.70
	completing tasks	.72
	self-centered	.83
	angry temperament	.81
Moral Elevation	15	.92
subfactor	body sensation	.87
	emotion	.89
	motive	.84
Altruistic Behavior	13	.86
subfactor	empathy	.74
	help	.80
	donation	.62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 관계에서 도덕적 고양의 구조적 관계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집 자료의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였다. 최종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χ^2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3.1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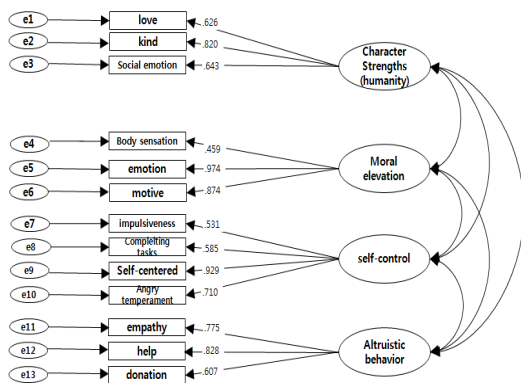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앞서,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인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과 이타행동을 적절히 측

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우도법(ML)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전체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Fig. 1] 과 같다. 이와 함께 연구모형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값은 282.467이며 TLI와 CFI 지수가 .90 이상이며, RMSEA .077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측정항목을 추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고 각 잠재변인의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 값이 0.7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잠재변인 사이에서 구성된 개념들 간의 중복 또는 유사성이 없고, 차별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판별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AVE)값이 상관계수 제곱을 상회하는 경우 만족한 것으로 본다. 분산추출지수가 가장 작은 잠재변인은 .685로 판별타당성을 만족한다<Table 3>.

<Table 2> Fit indices of the research model

Model	χ^2	χ^2/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282.467	4.788	.917	.937	.077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est results

variable	C.R.	AVE
character strengths(humanity)	.888	.730
self-control	.963	.868
moral elevation	.857	.685
altruistic behavior	.867	.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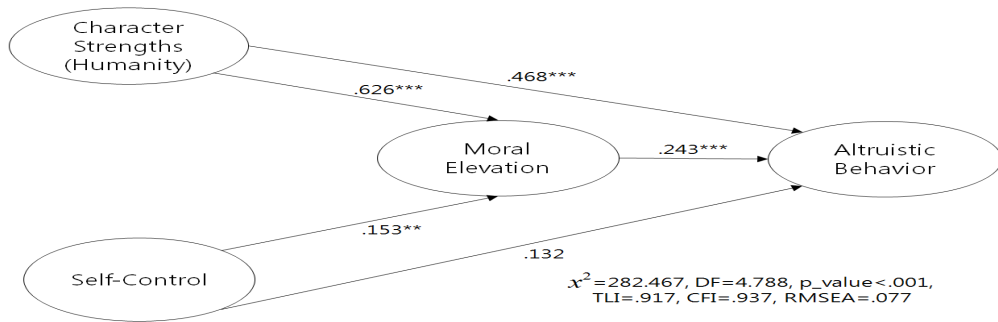
3.2 연구모형의 구조경로와 유효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구조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통제력→이타행동을 제외한, 성격강점(인간애)→도덕적 고양, 성격강점(인간애)→이타행동, 자기통제력→도덕적 고양, 도덕적 고양→이타행동 경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강점(인간애)은 도덕적 고양과 이타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고양은 이타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심리학의 성격강점에서 인간애 하위 덕목인 사랑, 친절, 사회·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도덕적 긍정 정서인 도덕적 고양에 영향을 주어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자기통제력은 도덕적 고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및 대인관계 면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결과에서도 긍정적인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Path	Estimate	S.E	β	C.R
Character Strengths(Humanity)→Moral Elevation	1.187	.120	.626	9.918***
Character Strengths(Humanity)→Altruistic Behavior	.737	.109	.468	6.760***
self-control →Moral Elevation	.190	.059	.153	2.745**
self-control →Altruistic Behavior	.136	.050	.132	1.570
Moral Elevation →Altruistic Behavior	.202	.041	.243	4.887***

p<.01, *p<.001



[Fig. 2] Path analysis of Character Strengths(Humanity), Self-Control, Moral Elevation, and Altruistic Behavior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성격강점에서 도덕적 고양에 이르는 경로가(=.626)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의 사랑, 친절, 사회·정서지능과 긍정적도덕성인 도덕적 고양에 높을수록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행동을 잘 표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의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성격강점(인간애)(=.468)과 도덕적 고양(=.2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격강점(인간애)이 도덕적 고양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격강점(인간애)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관계형성이 높아지며 이타행동 표출의 동기와 의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3 효과 분해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 도덕적 고양과 이타행동 등의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 대한 잠재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는

<Table 5>과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인간애)은 도덕적 고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전체효과가 있었으며, 이타행동에는 도덕적 고양을 통한 간접 효과를 가진다. 자기통제력은 도덕적 고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전체효과가 있었으며, 이타행동에는 도덕적 고양을 통한 간접 효과를 가진다. 도덕적 고양은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와 전체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부스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모두 이타행동에 대하여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전체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성격강점(인간애)에서 도덕적 고양으로 전체효과와 직접효과는 $\beta=.626(p<.001)$ 이며, 다음은 성격강점(인간애)에서 이타행동으로 가는 관계에서 직접효과($\beta=.468, p<.001$)와 간접효과($\beta=.152, p<.05$)로

<Table 5>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search Model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Character Strengths(Humanity)	Moral Elevation	.626***	-	.626***
Character Strengths(Humanity)	Altruistic Behavior	.468***	.152*	.620***
self-control	Moral Elevation	.153**	-	.153**
self-control	Altruistic Behavior	.132	.037*	.169
Moral Elevation	Altruistic Behavior	.243***	-	.243***

*p<.05, **p<.01 ***p<.001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점(인간애)이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도덕적 고양의 부분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에서 도덕적 고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전체효과는($\beta=.153, p<.001$)이다. 자기통제력에서 이타행동의 관계에서는 직접효과($\beta=.132, p>.05$)는 유의하지 않으나 간접효과($\beta=.037, p<.05$)로 도덕적 고양의 완전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은 도덕적 고양만을 통해서만 이타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고양과 이타행동의 관계에서는 직접효과와 전체효과($\beta=.243,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덕적 고양과 이타행동의 인과관계에서는 간접효과가 없으며 전체효과($\beta=.243$)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강점(인간애)에서 도덕적 고양, 성격강점(인간애)에서 이타행동, 도덕적 고양에서 이타행동, 자기통제력에서 도덕적 고양, 자기통제력에서 이타행동 순서로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도덕적 고양의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대학생의 이타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강점(인간애) 및 자기통제력과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고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및 도덕적 고양의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우선 성격강점(인간애)은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점(인간애)의 하위요인인 사회능력이 높으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거나 공유하는 행동을 더욱 많이 수행한다는 [23]의 연구와 사회성과 집단성이 친사회적 행동 및 이타행동 경향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2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도덕적 고양은 이타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덕적 고양의 높은 사람은 자신 내부의 선한 행동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표출하며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격려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크기에 도덕적 고양의 직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 및 이타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도덕적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이타행동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먼저 성격강점(인간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 고양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도덕정서를 발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성격강점과 자기통제력은 도덕적 고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 모두 도덕적 고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점(인간애)과 도덕적 고양이라는 도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성격강점(인간애)의 하위요인인 사랑, 친절, 사회·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도덕적 정서가 높으며 정서적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들[25, 26]을 지지하며, 자기통제력이 높으면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13]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성격강점(인간애)을 강조하고 자기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 과 프로그램의 적용의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성격강점(인간애)과 자기통제력은 도덕적 고양을 매개로 이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 성격강점(인간애)은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도덕적 고양의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강점(인간애)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강점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는 이타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통해 개인 내적인 면과 대인관계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케 한다는 [2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자기통제력은 이타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도덕적 고양의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시기에 자기통제력은 긍정적인 도덕 정서를 통해 도덕적 행동과 이타행동을 드러낸다는 [13, 2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타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와 함께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이상의 여러 연구 결과는 대학생 시기에 성격강점(인간애), 자기통제력이라는 개인 내적 특성변인들이 도덕적 긍정 정서인 도덕적 고양을 통해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써 긍정적 도덕 정서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성격강점 기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타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지도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J. Y. Lee, & H. S. Lee, The Effect of Altruism on Happiness and Peer Attachment. *Holistic Education Research*, Vol. 11, No. 2, pp. 15-29, 2007.
- [2] Rilling, J, The Biology of Benevolence. *Psychology Today*, Vol. 35, No. 6, p. 24, 2002.
- [3] McAdams, D. P, Hart, H. M., & Maruna S, The Anatomy of Generativity. In D. P. McAdams & E. de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pp. 7 - 43, 1998.
- [4] Seligman, M. E. P,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2002.
- [5] Peterson, C., & Seligman, M. E. P,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 [6] Y. J. Im,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and a Strengths-Based Positive Psychotherapy on Happiness.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7] Y. S. Kim, Relationship between E·Q and Altruis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1999.
- [8] M. J. Kim, The Effects of the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on the children Self-Control and Altruistic Behavior. MA. dissertation, Aju University, 2007.
- [9] J.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College Students. MA.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2012.
- [10] Bandura,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illiam, & Jacob(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N.Y: Hillsdale, pp. 45-96, 1991.
- [11] M. O. Seo, The Pathways to Moral Behavior in undergraduates: Based on the Rest's Four Component Mode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5, No. 3, pp. 25-51, 2007.
- [12] Rest, J. R, Morality. In J, H. Flavell, & E. M. Markma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John Willy & Sons. 1983.
- [13] G. H. So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oral self, Self control, Empathy, and Mor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Ph. 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13.
- [14] Aquino K., McFerran, B., Laven, M, Moral Identity and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in Response to Act of Uncommon Goo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0, No. 4, pp. 703-718, 2011.
- [15] Bal-Tal, D., & Raviv, A, Consistency of Helping Behavior measures. *Child Development*, Vol. 50, pp. 1235-1238, 1979.
- [16] B. Y. Choo, The Implications of Elevation to Moral educati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4.
- [17] S. M. Kweon, *Scientific Exploration of Happiness*. Hakjisa, 2009.
- [18] H. Y. Park, Perceived Maternal Discipline style and Self-control of their adolescent children. MA. dissertation, Che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19] Davidson, J, Engagement with beauty: Appreciating natural, artistic, and moral beauty. *Journal of Psychology*, Vol. 88, No. 5, pp. 770-789,

- 2008.
- [20] M. A. Kim, Effect of Moral emotion on Helping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as mediating helping behavior. MA. dissertation, Youngnam University, 2010.
- [21] Bal-Tal, D., & Raviv, A, Consistency of Helping Behavior measures. Child Development, Vol. 50, pp. 1235-1238, 1979.
- [22] S. J. Lee, The Effects of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Meditation: Altruism and Well-being. Ph. D. Aju university, 2014.
- [23]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Social intelligence=empathy=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5, No. 2, pp. 191-200, 2000.
- [24] Suda, W., & Fouts, G, Effects of peer presence on Helping in Introverted and Extrover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51, No. 4, pp. 1272-1275, 1980.
- [25]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Troyer, D., & Switzer, G, The relations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o their vicarious emotional responses and comfor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 65, No. 6, pp. 1678-1693, 1994.
- [26] Roberts, W., & Strayer, J,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 67, No. 2, pp. 449-470, 1996.
- [27]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Vol. 72, No. 2, pp. 271-322, 2004.
- [28] M. K. Park, Impact of Peer attachment and self-control on problem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A. dissertation, Kyongsung University, 2012.

장 용 희(Chang, Yong Hee)



- 2015년 7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박사
- 2015년 현재 : 충북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교육심리, 도덕정서
- E-Mail : maryboni@hanmail.net

이 재 신(Lee, Jae Shin)



- 1991년 1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박사
- 1982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창의성, 영재교육
- E-Mail : jslee@chungbuk.ac.kr

김 경 자(Kim, Kyung Ja)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 박사 수료
- 2015년 7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취업지원센터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진로, 심리상담
- E-Mail : gmother1958@hanmail.net